10월 나주 지역예술인·시민이 만든 주말 상설공연 풍성하네

돈붓는 축제 없애고 다양한 '판' 벌인다

자전거길·황포돛배·왕건호 운항 관광객 유치

나주시가 정체성과 소모성 문제가 제기됐던 '영산강 문화축제'를 대신해서 10월 한달동안 주말과 휴일에 지역의 문화자원을 활용한 '목사고을 나주 주말 상설공연 '판''을 본격 선보인다.

또 코스모스가 만개한 '영산강 자전거길'과 황포돛배, 왕건호를 운항해 본격적인 관광객 유치에 나선다.

매주 토요일에는 매일시장 철거로 조성된 금남동 야외 공연장에서, 일요일에는 '홍어의 거리' 조성으로 생긴 영산포 홍어의 거리와 선착장 등지에서 문화예술인과 시민이 함께 주말 상설공연이 어우러진다.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 시립 국악단과 합창단, S-Flava 비보이, 아카펠라, 오케스트라 공연 외에도 시화전과 사진전, 관아체험 등 각종 체험행사와 함께 수문장 교대식과 다문화 음식경연대회 등 풍성한 문화예술행사가 펼쳐진다.

또 힐링 코스로는 나주시가 영산강변을 따라 95㏊ 면적에 조성한 꽃길과 '영산강 자전거도로' 개통으로 시원스레 달릴 수 있는 하이킹 코스가 있다.

특히 다야뜰에서 영산포 선창으로 옮겨온 황포돛배와 왕건호는 예술공연을 보면서 체험할 수 있는 관광상품으로 손꼽히고 있다.

시는 관광객 유치를 위해 ▲관광객 유치 실적에 따른 여행사 관광 인센티브제 시행 ▲나주 1박2일 대표 여행상품 출시 ▲나주 목(牧)문화를 상품화한 '나주읍성 달빛기행' 프로그램 운영 등을 전략적으로 추진한다.

또 공연에 선보일 프로그램은 나주시립국악단과 시립합창단, 지역 문화예술단체 및 다양한 계층의 동아리 등으로 최대한 지역의 문화자원을 활용해 지역 문화예술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나주시가 축제 리모델링에 나선 것은 축제 개최때 마다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문제점 외에도 최근 중·남부 도심권에 있던 매일시장 철거와 '홍어의 거리' 조성으로 생긴 유휴공간에서 지역 문화예술인과 시민이 주체가 되는 주말상설공연을 펼치면 상시 축제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임성훈 나주시장은 "나주의 정체성을 되찾고 시민공감대 형성과 관광객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여론에 따라 축제의 변화를 꾀하게 됐다"고 말했다.

/중부취재본부=손영철기자 ycson@

담양군, 7일 '자전거 라이딩'

담양군이 군민 자전거 타기 붐 조성을 통한 자전거 레저문화 활성화를 꾀하기 위해 오는 7일 군민 자전거 라이딩 행사를 연다.

담양군 자전거연합회(회장 조상철)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대나무골의 맑은 바람, 영산강을 휘감다'라는 주제로 담양댐에서부터 광주시 용산교까지 담양 관내 32㎞에 달하는 자전거길 완공을 기념하고 군민의 건강증진과 자전거 타기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군민 자전거 라이딩' 코스(20㎞)는 자전거 동호회원과 지역주민 등 3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추성 경기장에서 출발해 관방제림과 '영산강 자전거길' 강쟁리 쉼터를 거쳐 다시 추성 경기장으로 돌아온다. 이날 자원봉사 단체인 '담양군 자전거길 지킴이단' 발대식도 함께 열린다.

군은 오는 2015년 6월 열리는 '담양 세계 대나무박람회' 홍보를 위해 참가자들에게 기념품을 제공한다. /중부취재본부=정재근기자 jjg@

정원박람회 참가국 잇따라 순천 방문

日·세이셸 공화국·태국 이어 네덜란드 조직위도 찾아

내년 4월 20일 개막을 앞두고 조성작업이 한창인 2013 순천만 국제 정원박람회장에 해외 정원 관계자들의 방문이 잇따르고 있다.

순천시에 따르면 최근 정원박람회장내 네덜란드 정원 조성과 관련, 네덜란드 벤로박람회 조직위 관계자들이 지난 2일 박람회장을 찾았다.

벤로박람회 조직위원인 반루이 호스트안데마스시 시장을 대표로 일행 7명은 박람회장내 네덜란드 정원 조성 현장을 살펴보고 박람회 기간 국가의 날 및 문화행사 참여 방법 등을 논의했다.

이들은 네덜란드 정원 완성 후 모습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순천만 호수, '꿈의 다리' 등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였고, 짧은 기간에도 완성도 높게 조성되는 박람회장에 놀라움을 표시했다.

앞서 지난 9월에는 일본 사가현과 세이셸 공화국, 태국 왕립 원예협회 등 3개국 관계자들이 자국 정원 조성 현장을 둘러봤다.

순천만 국제 정원박람회에는 미국·영국·프랑스·독일·호주·수단·중국 등 모두 20개국이 국가정원 조성 등의 방법으로 참가하기로 했다. 박람회 조직위는 해외 국가들의 정원조성 참여가 해외 관람객 유치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람회조직위는 더 많은 국가들의 정원 유치에 나서는 한편 특히 북한의 참여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는 내년 4월 20일부터 10월 20일까지 순천만 일원에서 열린다.

/동부취재본부=김은종기자 jyj@

귀농인 성공 정착 보금자리 생겼다

장성, 체험둥지 준공

장성군이 귀농 희망자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보금자리를 마련했다. 장성군은 최근 남면 서목마을에서 귀농 체험둥지 준공식을 가졌다.

귀농 체험둥지는 귀농·귀촌을 하고자 하는 도시민이 농지의 매매·임대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일정기간 동안 거주하며 농촌체험을 할 수 있도록 마련한 것으로, 귀농·귀촌 과정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게 된다.

이번에 준공된 귀농 체험둥지는 지난해 10월 재경 향우인 김달수 씨가 장성군에 기증한 대지(1872㎡)내 건물 70㎡를 리모델링한 것이다. 기증자의 건물 외형 복원의사를 존중해 1주택 2가구형으로 재건축됐다.

건물 내부는 주방시설·거실·안방으로 구성돼 입주 후 실제 생활이 가능토록 설계됐다. 또한 입주자들이 농촌생활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텃밭 30여평도 조성, 농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중부취재본부=김용호기자

벼 유기재배 평가회

광양시 농업기술센터는 최근 진상면 유기재배 단지에서 벼농사 종합 평가회를 가졌다. 화학비료와 농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유기재배는 일반 재배에 비해 1000㎡당 60㎏이 증수(增收)된 것으로 나타났다. 〈광양시 제공〉

환경지식 나눔 실천 '에코-에듀 스쿨' 열어

한국환경공단-조선이공대

한국환경공단 호남지역본부 자원순환처(처장 임재욱)는 최근 조선이공대 대강당에서 환경지식 나눔을 실천하는 '에코-에듀 스쿨'(eco-edu school)을 열었다.

이번 교육은 지속가능한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폐기물 자원순환 정책과 천연자원 고갈, 환경 자정능력 한계 등을 극복하기 위한 글로벌 대응 전략에 관한 토론 형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환경전문 공공기관이 직접 학생들에게 산업현장의 체험담과 노하우를 생생히 전달해 줌으로써 양 기관간 산학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앞서 한국환경공단과 조선이공대 산학협력단(단장 민완기) 은 지난 6월 폐기물 분야의 정보교환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임재욱 자원순환처장은 "환경전문기관으로서의 특성을 살려 앞으로 지역 환경전공 학생들에게 캠퍼스에서는 접하지 못하는 현장의 소리, 노하우 등의 지식 나눔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전북취재본부=백선기자 bs8787@

전남도 '사회적기업가 아카데미' 개설

동부권 순천대·서부권 영광에

전남도가 올해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선정된 54개 기업과 사회적기업에 관심있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사회적기업가 아카데미'를 개설했다.

순천대 사회적기업경영연구소가 위탁운영하는 이 아카데미는 기업의 세무·회계, 인사·노무 관리, 마케팅 전략, 사회적기업의 인증 요건, 현장견학 등으로 구성됐으며 실무 위주로 진행된다.

지역적 접근성을 감안, 수강생들이 쉽게 찾아올 수 있도록 2개 권역에서 운영하며 동부권은 순천대에서 25일까지, 서부권은 영광군립도서관에서 12일부터 11월 2일까지다.

주 1회 6시간, 4회에 걸쳐 수업이 진행되며 예비사회적기업의 대표와 사무장 또는 사회적기업에 관심있는 도민은 누구나 일정과 장소에 맞춰 개강 2일전까지 신청하면 참여할 수 있다.

전남도는 또 12월1일로 예정된 협동조합기본법 최초 시행에 대비해 협동조합 설립을 희망하는 예비 사업가들을 대상으로 10월 중순 순천에 1개월 과정의 협동조합 아카데미를 개설할 예정이다.

협동조합 아카데미에는 조합 설립 절차, 정관 작성, 사업계획 수립 및 신청서류, 현장 탐방 등으로 이뤄진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노인 사회참여 확대 보행 보조차 지원 호응

영암군이 지난 7월부터 관내 65세 이상 노인중 장기요양등급(A·B)을 받은 대상자의 사회참여 확대 및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노인 보행 보조차를 지원, 호응을 얻고 있다.

지원 대상은 군내 거주 장기요양등급외 자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인 저소득 노인 등이다. '장애인복지법' 및 '노인장기 요양보험법' 등 타 법령에 의해 지원받고 있는 장기요양 등급 1~3등급자 및 장애인 등은 제외된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수시 신청을 받고 있다.

/중부취재본부=문병선기자 moon@